

#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한나라당 김만제의원 인터뷰

(이회창 후보 경제특별자문역)

## “가장 획기적인 해결책”

기자: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공약했는데?  
김만제: 수도권 과밀 집중현상에 대해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 
가장 획기적인 해결책을 내놓았다. 매우 인상적이다

기자: 이회창 후보가 끝까지 반대한다면?  
김만제: 경쟁자가 제안했으니까  
무조건 일단 반대하고 보자는 논리는 안된다.  
나는 국회발언에서도 지지했다.

-오마이뉴스 이종호 기자

# 혹세무민,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

- 숨막히는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.-

-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은 지방분권화와 균형발전 그리고 본격적인 남북교류시대와 고속전철시대에 대비한 전국의 2시간 생활권화를 기약하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.
-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서울을 공해와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여 과밀집중화 현상을 해결하고 집값이 안정되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쾌적한 도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.

## 청와대와 북악산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

- 특히, 땅은 미국의 95분지 1인데 비해 대통령 관저는 3.5배, 결과적으로 330배나 큰 규모에 “제왕적” 대통령이 살아온 청와대, 또 그보다 몇십배가 큰 북악산을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돌려서 시민공원을 만들면 서울은 얼마나 멋있고 쾌적한 도시가 되겠습니까?
- 이러한 꿈과 비전을 모르고 한나라당 후보는 이미 두달 전에 발표한 우리의 공약에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집값이 폭락한다는 식의 거짓말만 하고 있으니 지난 두달 동안 무얼하고 계셨습니까?
- 노무현 후보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
- LA 타임즈 기사처럼 패색이 분명해 지니까, 혹세무민(惑世誣民)이라도 하지는 속셈인가요. 명색이 대통령 후보로서 금도를 지킵시다.

행정수도 문제로 언제 어디서나 공개투론 할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.

노무현과 만납시다 (13일)

12.12(목)~12.14(토)는 부재자 투표일입니다.  
당신의 한표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.

후보연설: MBC-TV 21:50~22:10  
천조연설: KBS1-TV 18:40~19:00

새로운 대한민국 -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■ 국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1588-2002

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입니다.

새천년민주당

**2** 국민후보 노무현